

# 완주 화산중, IB 후보학교 승인

### 남원 용복중·전주 아중초교에 이은 '도내 세번째' '살아있는 교육, 탐구하는 교실' 원칙으로 준비해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교육활동 참여도 매우 높아

완주 화산중학교가 IB(국제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이는 남원 용복중학교, 전주아중초등학교에 이은 도내에서 세 번째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IB 중학교 과정 프로그램(MYP) 관심학교를 운영하는 화산중학교가 IB(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앞서 화산중은 '살아있는 교육, 탐구하는 교실'을 원칙으로 IB MYP 후보학교 승인을 준비해왔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사 책임학급제 운영과, 학생

주도의 탐구활동에 기초한 PBL수업 등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특히 화산중은 전국 단위 모집 기숙형 중학교로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교육활동 참여도가 매우 높아 IB의 교수·학습을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후보학교로 승인 받은 학교는 IB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 받는다. 또 IB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발적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금처럼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



완주 화산중학교가 IB(국제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앞서 화산중은 '살아있는 교육, 탐구하는 교실'을 원칙으로 후보학교 승인을 준비해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해 수업·평가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관련 전문 교원을 단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지역과 함께 교육포럼'이 열린 가운데,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 전북교육청, '지역과 함께 교육포럼'

### '2022 개정교육과정과 지역교육' 주제로 교육정책사업 설명

### 공주대 양병찬 교수 특강...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 방향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2층 강당에서 '지역과 함께 교육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형 미래교육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급 이상 간부, 14개

시·군 교육장, 특별자문위원회 이미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중등교육과 인사 장학관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지역교육'을 주제로 교육정책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양 교수는 학교와 지역이 연계해 지역교육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과 함께 미래교육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강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전북교육의 혁신적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과 지역의 상생은 시대적 요구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할 때 전북교육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전교조 발표 '튀김로봇 도입 의혹', 사실과 달라"

### "급식관계자 협의회 통해 현장 의견 수렴 결과

### 현재까지 튀김로봇 본격 도입 계획 없어"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급식담당 관계자는 전교조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전북교육청 튀김로봇 도입 의혹'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튀김로봇 도입에 대한 과정은 급식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며, 이번에 기준된 튀김로봇은 급식인원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학교에 최적화 된 로봇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에 적정한 규모와 설치 적합한 전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기

중 희망을 안내했고, 또 희망학교 구성원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2025년 10억원 이상의 협동조리로봇 도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튀김로봇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2025년 예산편성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연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도입계획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전북자치도교육청,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

###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교무·학사분야 감사지원 장학사, 감사지원단 등 160여 명이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감사인의 자세와 윤리 △감사방향 및 감사업무 이해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회계·교무·학사 감사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감사담당공무원의 소통 및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절'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펼쳐졌다.

이홍열 감사관은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 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진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공명정대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취업 캠프' 운영

### 공공기관 취업 캠프'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1일 양일 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 캠프'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학생 및 졸업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먼저,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 실무자가 직접 현장 직무와 채용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맞춤형 면접 교육에서는 인사팀에서의 18년 경력을 보유한 취업 전문 컨설턴트를, 또 모의 면접과 컨설팅에서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인사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현직자를 각각 초청했다.

취업 캠프에 참여한 박하담(IT금융학과 4년) 학생은 "도내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고 싶은 막연한 목표만 있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숙경 센터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직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질화물 반도체 제어·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기술 연구 수행

### 전북대 신세비·주재홍 석사과정생

###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각각 선정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신세비·주재홍 석사과정생(지도교수 라용호)이 교육부의 2024년도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에 각각 선정됐다



라용호 교수



신세비 석사과정생



주재홍 석사과정생

다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두 석사과정생들은 1년 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석사과정 학위 논문 관련 연구와 지원사업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신세비 석사과정생은 '수직 광 방출 nano-LED 소자를 위한 질화물 나노로드 구조 향상 제어 기술 연구'를 주제로, 주재홍 석사과정생은 'III-족 질화물 반도체 나노로드 기반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기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라용호 교수는 "신소재공학부 전자정보재료공학과 석사과정생들의 연구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한 연구 수행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라용호 교수 연구팀은 3족 질화물 반도체 구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다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두 석사과정생들은 1년 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석사과정 학위 논문 관련 연구와 지원사업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신세비 석사과정생은 '수직 광 방출 nano-LED 소자를 위한 질화물 나노로드 구조 향상 제어 기술 연구'를 주제로, 주재홍 석사과정생은 'III-족 질화물 반도체 나노로드 기반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기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라용호 교수는 "신소재공학부 전자정보재료공학과 석사과정생들의 연구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한 연구 수행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라용호 교수 연구팀은 3족 질화물 반도체 구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 10종 서류 1종으로 통합... 계약업체와 발주기관 간 신뢰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행정안전부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종의 계약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고, 이를 S2B 학교장터에서 자동으로 출력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발발조건 동의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의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청렴계약이행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배제사유 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하여부 확인서 등이다.

이와 함께 △계약업체 대금 지급 안내 및 계약 만족도 조사 문자 자동 발

송 △청렴서약문 자동 발송 △입찰 공고문 청렴계약 슬로건 자동 삽입 등의 편의 기능도 추가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교육, 대폭 확대 및 계약유무 편람 제작,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있는 '이음교육터' 도입, '계약 EASY' 제도 신설 등 계약업무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으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 업무는 간소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계약업무담당자는 물론 계약상대자인 계약업체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발주기관과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석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과 '맞손'

### 기술·경영 자문,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 상호협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호텔외식조리학과 박기홍 학과장, 이숙후 교수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에서도 김태정 지회장과 정창훈 사무국장, 조익재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인력,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취업 및 프로젝트 공동 수행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의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 호텔외식조리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정 지회장은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와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